



1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일본과의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박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야구대표팀은 15일과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야구는 이제 일본을 '다이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국 야구가 일본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시기를 한정하면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이 열린 2006년부터 2015년 프리미어12까지 10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일본과 잊혀지지않는 경쟁하며 프로 선수거리 맞붙는 '진검 대결'에서 7승 5패로 앞섰다.

2015년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9회 4점을 내 4-3으로 대역전승을 거둔 게 일본전 마지막 승리다. 이후 2024년까지 벌어진 9경기에서 한국은 전패로 일본에 고개를 숙였다.

내년 3월에 열리는 WBC에서 설욕을 다짐하는 한국 야구는 먼저 일본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현재 기량을 점검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

구대표팀은 15일과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야구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에는 2026 WBC에서 같은 C조에 속한 일본의 전력을 미리 살피고 우리의 보완점을 파악할 좋은 기회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 엔트리를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렸다. 특히 투수진은 평균 연령 22.1세로 역대 성인 대표팀 가운데 가장 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O리그에서 최고

한국 야구는 앞으로 수년간 KBO리그 투수진 평균 22세 역대 가장 젊어 기본 150km/h 이상 던지는 강속 멤버 내년 3월 WBC 설욕 위한 점검 경기

시속 150km를 던지면 '강속구 투수'로 대접받았지만, 이번 대표팀에는 시속 150km를 못 던지는 투수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다.

한국 야구는 앞으로 수년간 KBO리그

와 대표팀을 지탱해야 할 영건들이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에서 자신감을 얻는다면, 평가전 승리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김영우(LG 트윈스)와 정우주(한화 이글스), 배찬승(삼성

라이온즈) 신인 투수 삼총사가 보여줄 경기력에 기대가 크다. 선발 마운드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원태인(삼성)과 문동주(한화)의 한일전 등판이 불투명하다. 이들은 KBO리그에서 너무 많이 던진 탓에 회복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신 광빈(두산 베어스)이나 손주영(LG), 오원석(kt wiz) 등이 '일본 킬러' 가능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타선에서는 국제대회 좋은 성적을 위해 꼭 필요한 '우타자' 활약을 확인할 기회다.

이번 대표팀에서 스위치 히터인 김주원(NC 다이노스)을 제외하면 순수한 우타자는 노시환(한화)과 한동희(상무), 안현민(kt) 3명 뿐이다. 특히 올해 해상처럼 등장한 '선구안 좋은 우타 거포' 안현민이 일본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년 WBC 1라운드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맞서 일본은 올해 자국 리그에서 맹타를 휘두른 '타격 기계'들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히로시마 도요카프 내야수 고조노 가이토는 올 시즌 타율 0.309, 161안타를 때리며 센트럴리그 타격왕에 올랐다. 한신 타이거스 간판으로 성장 중인 모리시타 쇼타 역시 23홈런과 89타점을 쓸어 담

아 해결사 능력을 입증했다. 마운드에서는 '젊은 에이스' 다카하시 히로토(주니치 드래곤스)가 요주의 인물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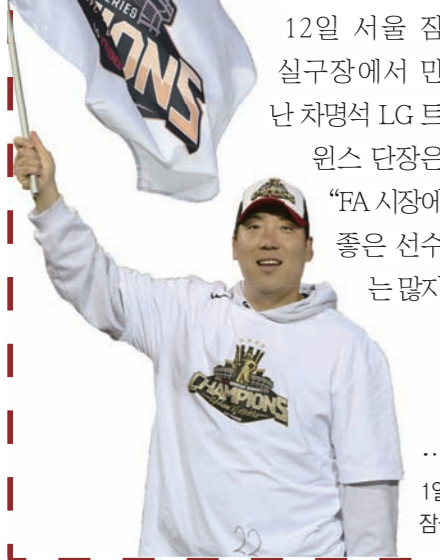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 9년간 9연패... 치욕의 역사 끝는다

## “김현수·박해민 안 놓치겠다”... FA 관심 없는 LG



내부 재계약 우선... “영업보다 돌아올 선수에 집중”

1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만난 차명석 LG 트윈스 단장은 “FA 시장에 좋은 선수는 많지만

만 우리 팀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선수는 없다”며 “외야수 이재원이 상무에서 복귀하고 내야진은 광 찻다. 김윤식과 이민호, 1군 경험이 많은 투수들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FA 영입보다는 “돌아올 선수로 우승 전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통합우승 IN 잠실 행사에서 KS 우승 깃발을 든 LG 김현수. 연합뉴스

이번 FA 시장에서는 왼손 거포 강백호, 수비와 주루가 뛰어난 유격수 박찬호가 최대어로 꼽힌다. 불펜 투수도 몇몇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내부 육성으로 탄탄한 토대를 갖추고, FA 영입으로 퍼즐을 맞춰 최근 3년 동안 2번(2023년, 2025년)이나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는 이번 겨울에는 외부

에 눈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LG가 외부 FA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차 단장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다.

우승의 주역인 ‘내부 FA’ 김현수(37), 박해민(35) 잔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계는 있다. 차 단장은 “시장가와 예산을 고려해 김현수, 박해민에게 ‘최선의 제안’을 할 것”이라며 “홍창기, 박동원도 곧 FA다. 셀러리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모마·강소희·타나차 도로공사 막강 트리오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의 2025-2026 V리그 시즌 초반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 2라운드 첫 경기에서 3-0 세트아웃 승리를 거뒀다. 6연승을 달린 도로공사는 시즌 6승 1패(승점 16)를 기록하며 선두 질주 중이다. 2위 현대건설(3승 3패-승점 11), 3위 페퍼저축은행(4승 2패), 4위 GS칼텍스(3승 3패-승점 10) 등 후미 그룹을 말쑥잡지 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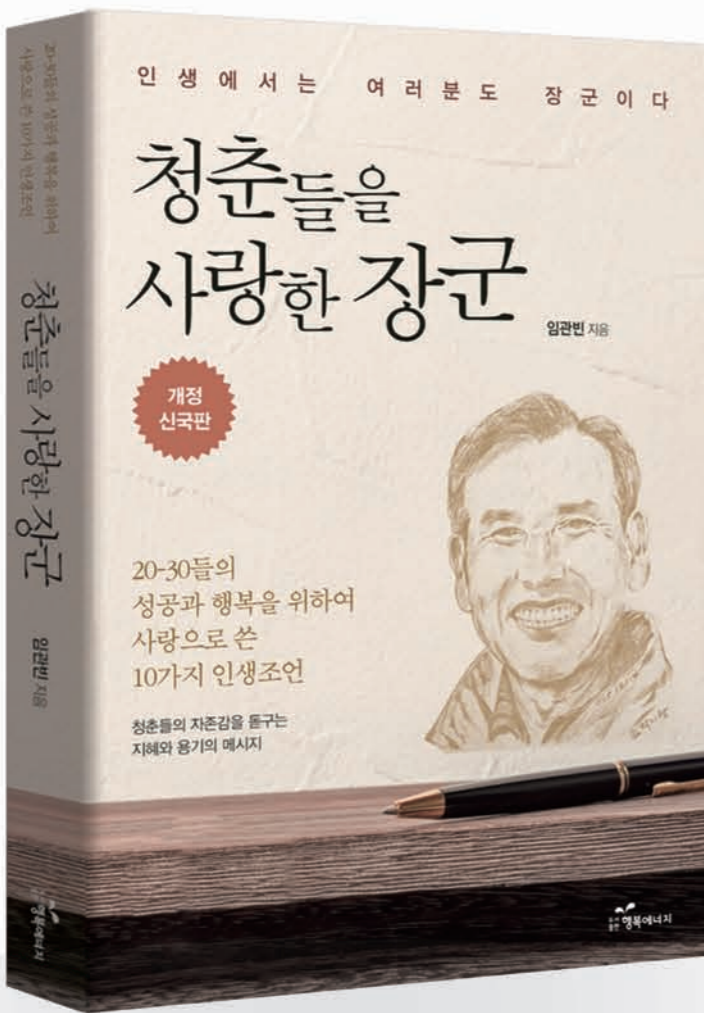


축은행과 개막전 2-3 패배 이후 6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엔 물론 선두 경쟁을 벌이는 현대건설, ‘쿠바 특급’ 지젤 살바(등록명 살바)를 앞세운 GS칼텍스도 모두 무너뜨렸다.

도로공사의 선두 질주 원동력은 7개 구단 최강의 삼각편대다.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외국인 거포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등록명 모마-사진)를 5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때 4

순위로 지명했고 기량이 검증된 아시아 쿼터 타나차 쑤삭(등록명 타나차)과도 재계약했다. 토종 거포 강소희가 합세해 공격 주축을 이루면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됐다.

#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 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